MY BIBLE FIRST B47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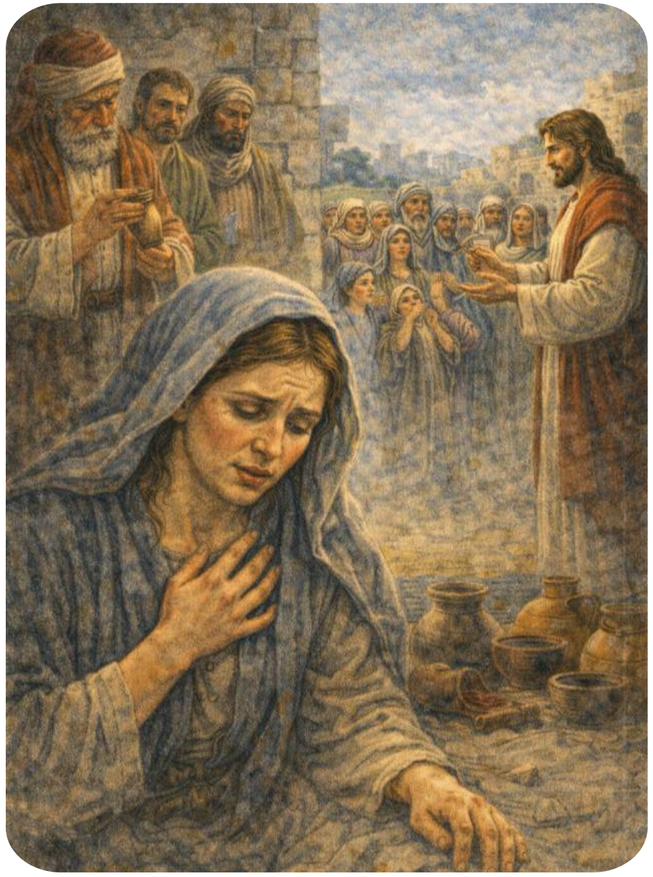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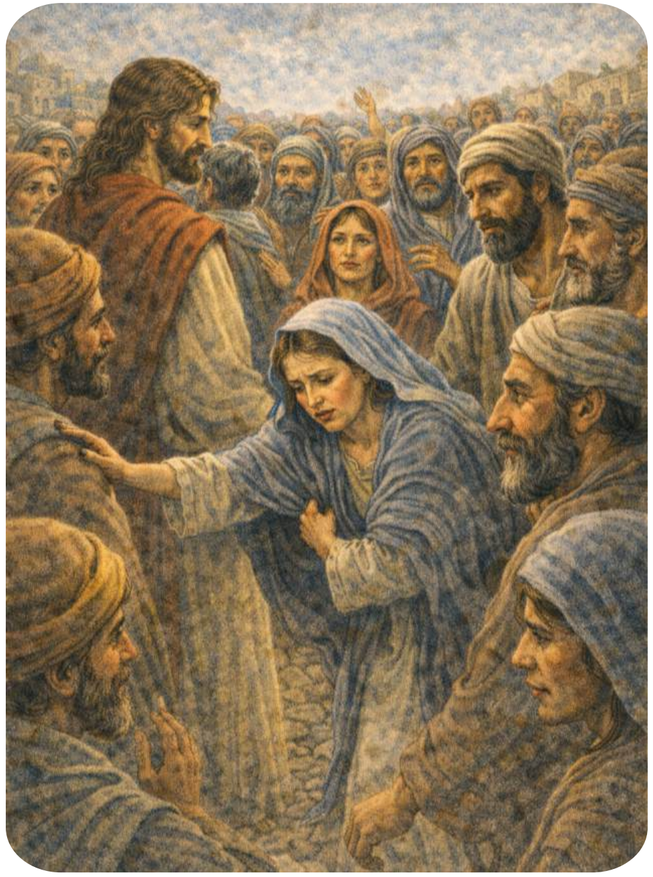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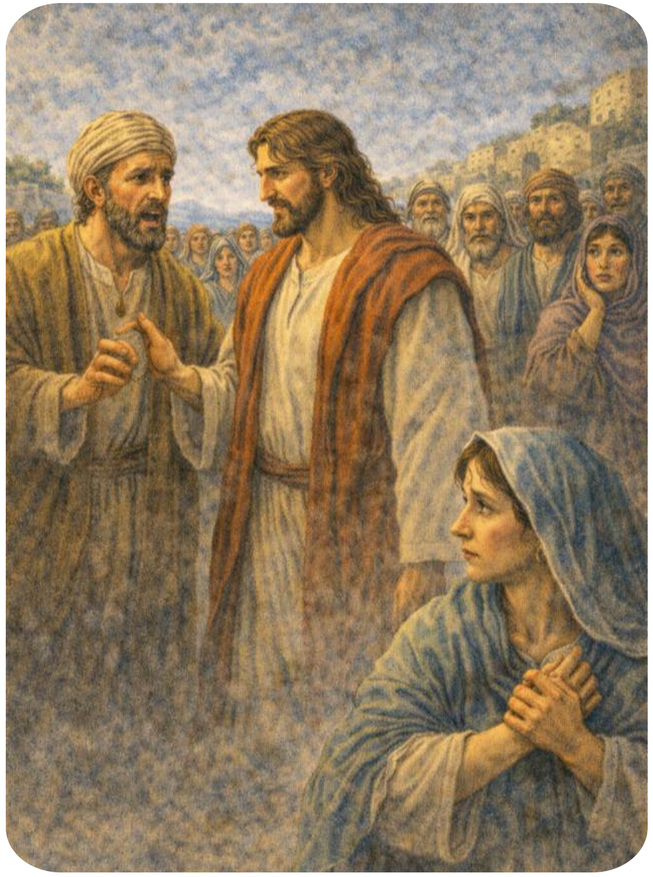
한 여인이 무려 열두 해 동안 아팠지만,
많은 의사와 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돈도 다 쓰고 희망도 작아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이 안 났어요. 여인은 몸이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따라 걸었어요.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나을 거야”라고 믿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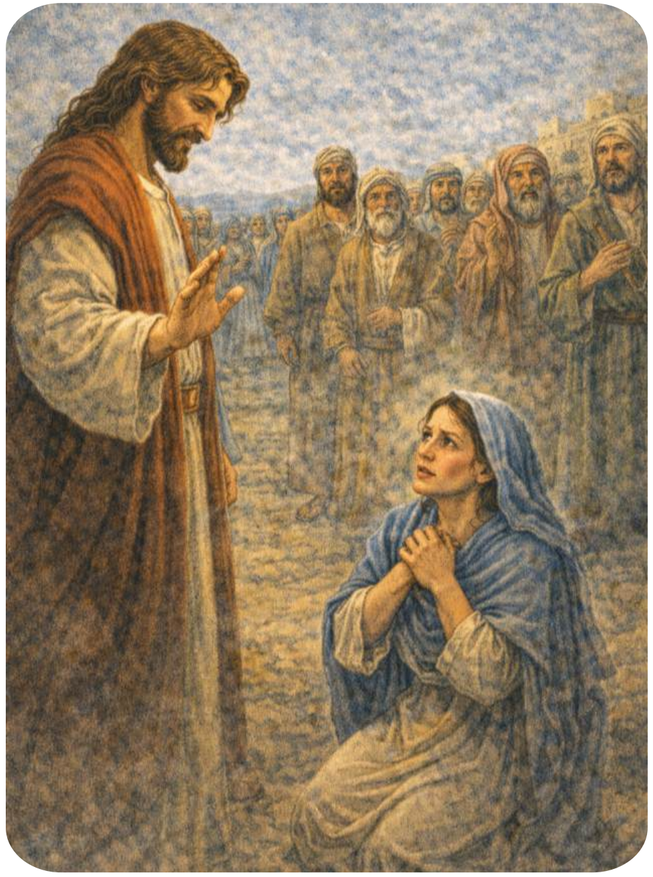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 “딸이 죽어가요”라며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곧장 함께 가셨고,
사람들도 따라갔어요.

여인도 그 무리 속에서 기회를 기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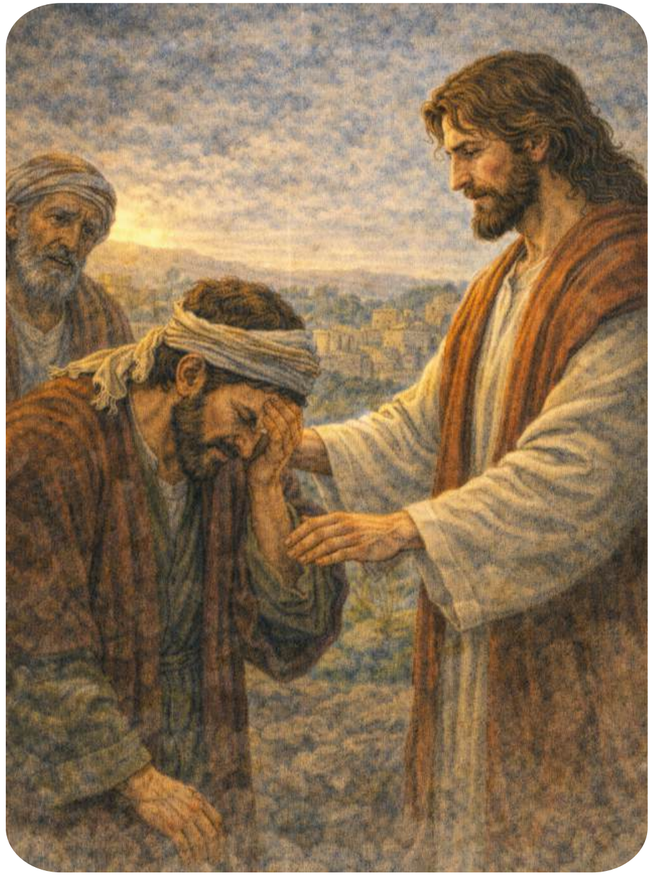
여인은 몸을 숙여 손을 길게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닿았어요.
바로 그 순간, 몸에 힘이 돌아오며 병이 나았어요.

여인은 조용히 감사하며 물러나려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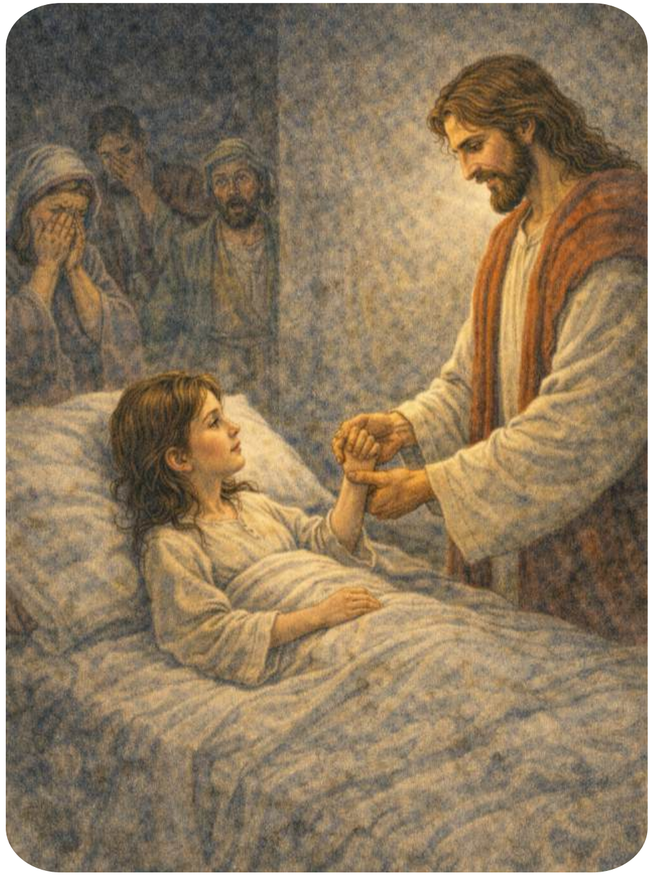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멈추셨어요. 여인은 떨렸지만
용기 내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눅 8:48).



바로 그때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왔어요. 야이로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눅 8:50). 예수님은 끝까지
가장 좋은 때와 길을 알고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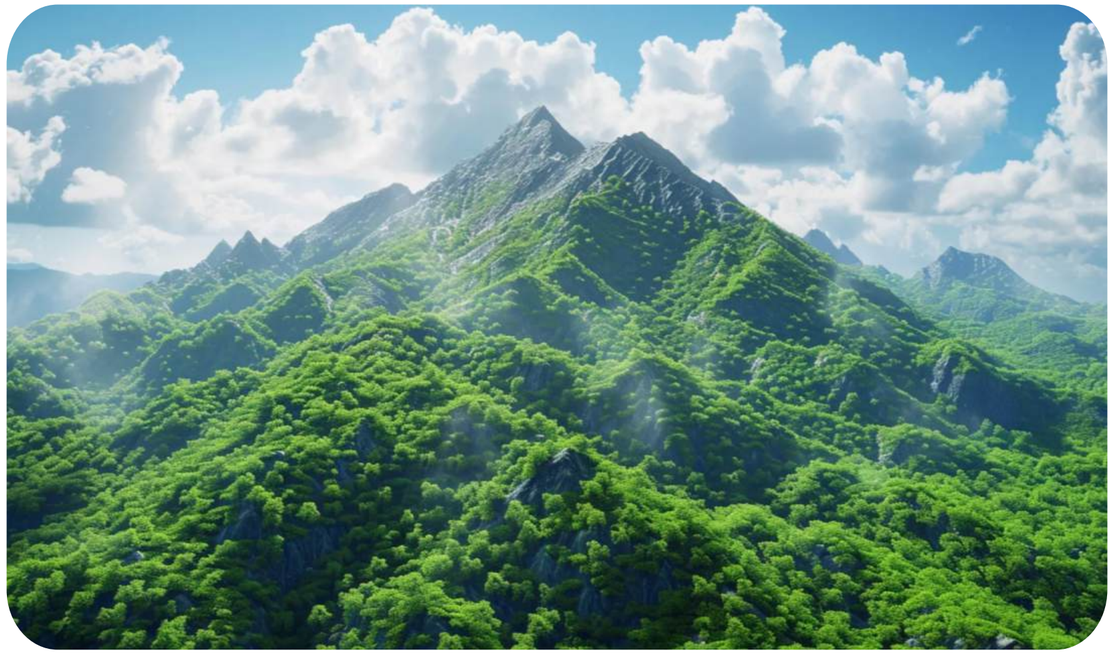
집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소녀를 “자고 있다” 하시며
조용히 하셨어요.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소녀가 살아났어요(눅 8:54).
진짜 믿음은 말로만 “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장 5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산



산이 아주 커서 사람이 어쩌지 못하듯, 우리도 어떤 문제는 스스로 못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가는 선택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산이랑 언덕은 뭐가 다를까?

재미있게도 “산”의 딱 정해진 한 줄 정의는 나라와 학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곳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산,
어떤 사람은 언덕이라고도 불러요.

중요한 건 “주변보다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와 “지형이 얼마나 뚜렷한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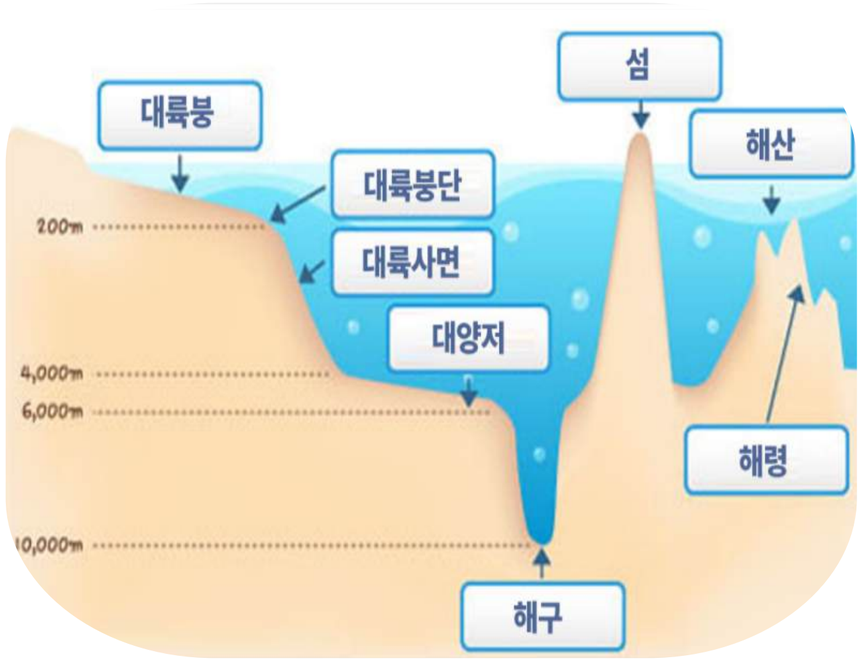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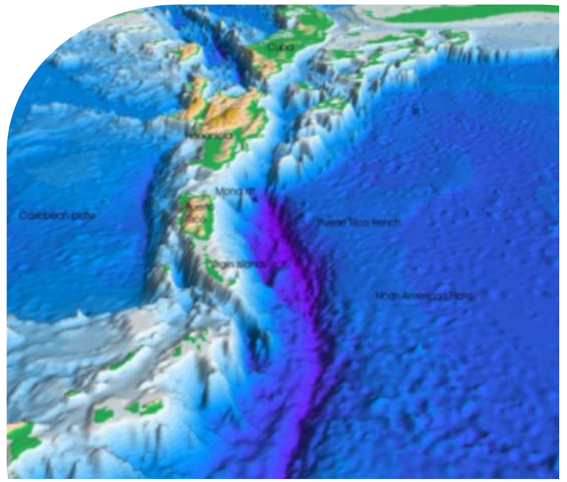




산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길게 이어진 “산맥”인 경우가 많아요.
남미의 안데스 산맥처럼 수천 km 가까이 이어지는 산맥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한 봉우리”가 아니라 “거대한 줄”처럼 보인답니다.







산은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밑에는 해령(중앙해령) 같은 “해저 산맥”이 길게 뻗어 있어요. 바닥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땅이 벌어지며 새 바닥이 만들어져서, 산맥이 “자라나는 중”이에요.

산 모양이 다른 이유

미국 서부 로키 산맥은 높고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많고,
동부 애팔래치아(블루리지) 쪽은 더 둥글고 완만해요.

이런 차이는 “얼마나 오래 깎였는지(침식)”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지각 운동)”가
달라서 생겨요. 사진을 비교해 보면 느낌이 확 달라요.

[서 부] 로키 산맥





[동 부]애팔래치아 산맥(블루리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이야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에베레스트예요. 공식 높이는 약 8,848.86m로 발표된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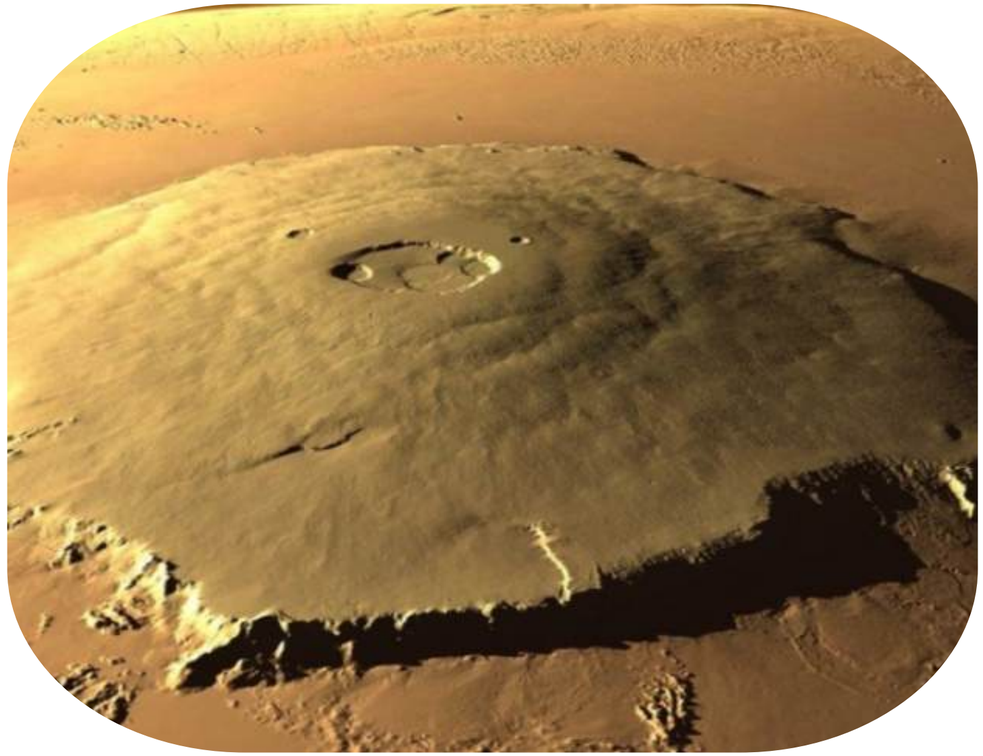
높은 곳일수록 공기가 얇고 추워서, 사람에게는 더 힘든 환경이 되지요.



화성에는 더 큰 산도 있어요

지구 밖에도 산이 있어요.
화성의 올림푸스 산(Olympus Mons)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으로 소개되곤 해요.

NASA 설명에 따르면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40km 이상으로 비교되기도 해요.



오늘의 교훈

산은 아주 크고 단단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과 슬픔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인과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며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 된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산은 아주 크고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옮길 수 없어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옮길 수 있을까?”,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크고 힘든 문제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산’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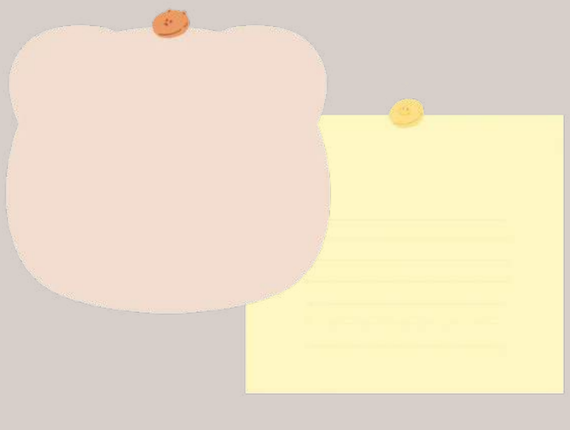
준비물



전지 or 큰 도화지



색칠 도구



포스트잇

활동 방법

1. 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활동을 시작한다.

- 산은 얼마나 크고 높을까요?
- 산을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 산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2. 나에게 '큰 문제나 걱정'을 떠올려 본다.

- 요즘 나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있나요?
- 조금 걱정되거나,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일은 무엇인가요?
- 포스트잇 위에 '나에게 큰 문제나 걱정' 한 가지를 그리거나 적어보아요.

활동 방법

3. 큰 산 위에 고민이나 걱정을 붙여 본다.

- 도화지에 큰 산을 그려보아요.
- 나의 고민을 이 산 위에 붙여 보아요.
- 이 산 위에 어떤 걱정들이 모였나요?

4.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 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어떤가요?
- 예수님께 이 걱정을 맡긴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산은 아주 커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께는 너무 작지요."

활동 방법

5.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로 마무리한다.

- 우리의 걱정은 산처럼 커 보여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세요.
  우리는 혼자 걱정을 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걱정이 산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버티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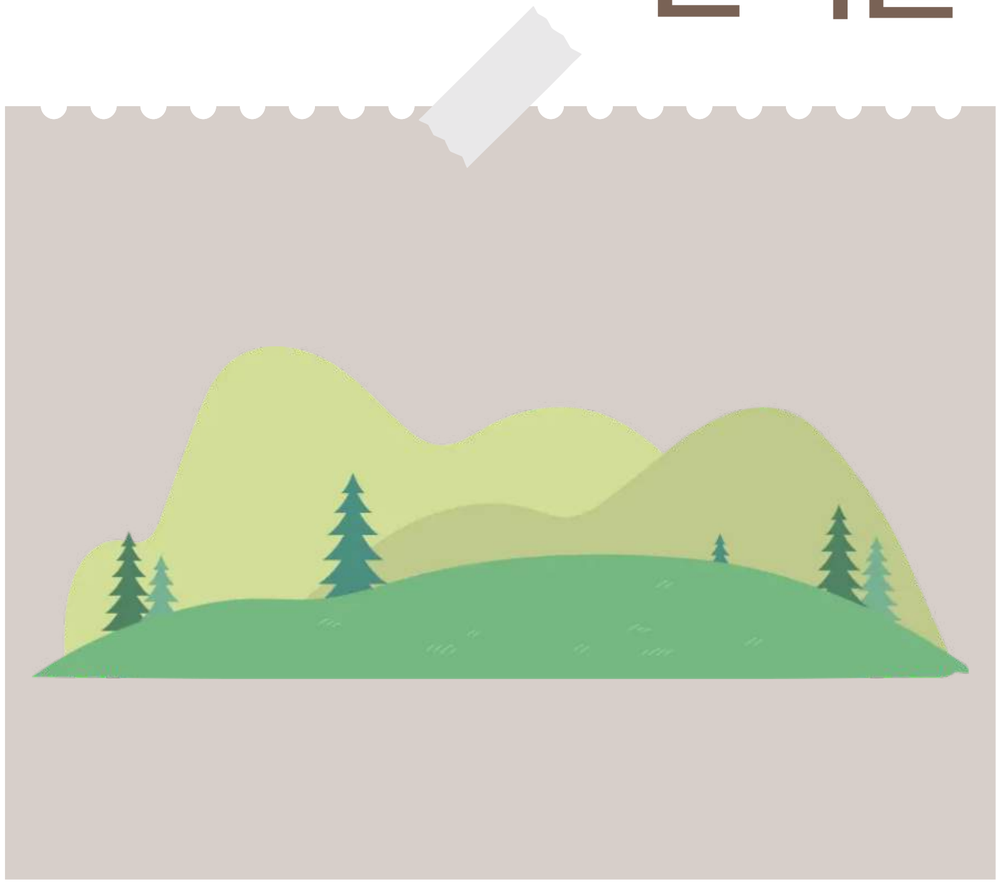
정상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길은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 믿음의 길 끝에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산을 오르는 경험을 통해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느껴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함께 떠올려 보아요.

준비물



야외 공간

활동 방법

1. 말씀 내용을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언제나 쉬운 일만 있었을까요?
- 제자들이나 성경 속 사람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까요?
-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 오늘 할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산을 오를 때 우리 몸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 오르막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 그래도 정상까지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오늘은 산을 오르며,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마음을 함께 느껴볼 거예요.

활동 방법

3. ‘정상’을 향해 천천히 산을 오른다.

- 조금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 그래도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4. 정상에 도착하여 느낌을 나눈 뒤, 성경 이야기와 연결한다.

- 정상에 도착하니 지금 마음이 어때요?
- 올라오는 동안 힘들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끝까지 와서 어떤 점이 가장 기뻤나요?
- 믿음의 길도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나요?
-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활동 방법

3. ‘정상’을 향해 천천히 산을 오른다.

- 조금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 그래도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4. 정상에 도착하여 느낌을 나눈 뒤, 성경 이야기와 연결한다.

- 정상에 도착하니 지금 마음이 어때요?
- 올라오는 동안 힘들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끝까지 와서 어떤 점이 가장 기뻤나요?
- 믿음의 길도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나요?
-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활동 방법

5.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마무리한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길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

